

존 오스왈트 박사, 열왕기, 15회기, 1부 열왕기상 19-20장, 1부

© 2024 존 오스왈트와 테드 힐데브란트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제목을 붙인 19장과 20장을 봅니다.

시작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래된 의식에서 말했듯이 아버지의 재산은 항상 자비를 베푸는 것임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악을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그런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당신의 자비를 받아들이고 믿음과 신뢰와 순종으로 그 자비에 응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이 요구하시는 이 상호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진리를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상한 것 중 하나는 엘리야가 거의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는 18장에 보고된 대로 엄청나게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지난 세션의 끝에서 보았듯이 이전에도 뛰었습니다. 아합의 병거는 여름 수도인 이스라엘에서 약 20마일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19장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세벨이 별로 감동을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떤 식으로든 엘리야에게 그를 죽이겠다고 전갈을 보냅니다. 그녀는 그것을 맹세의 형태로 표현합니다. 만약 내일 이맘때쯤에 내가 당신의

삶을 갈멜산 기슭에서 죽임을 당한 선지자 중 한 사람과 같지 않게 된다면 신들이 나에게 아주 엄한 벌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난 당신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요, 아가씨. 그러나 사실 3절을 보면 그가 두려워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지 다음 카운티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지도를 보면 사마리아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거쳐 유다를 거쳐 브엘세바까지 달려가서 멈추었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입니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달리는 것은 마치 공원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도착해서, 그는 자기 종을 남겨두고 광야로 하루 길을 갔다.

그는 로렘나무에 이르러 그 밑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우와.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나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반응이라고 제안합니다.

사역에 참여해 본 우리 모두는 아마도 이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엄청난 높이에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항상 높은 곳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반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곳에서 그는 추락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일어난 일은 이세벨이 이 점을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흥미 롭군.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종류의 경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한번은 여행을 다니면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켄터키주 렉싱턴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68번 국도가 월모어를 향해 남쪽으로 가는 지점을 꽤 잘 찾아볼 수 있었는데, 표현한 대로 공기가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자신도 모르게 아드레날린이 치솟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내 생각에는 엘리야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높은 곳에서 살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최고치 이후에 균형이 잡혀지고 최저치를 경험하더라도 놀라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이 매우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맙소사,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라고 말해보세요. 나는 너무나 영적인 황홀경을 경험하고 있었고 지금은 쓰레기통에 빠져 있습니다. 이럴 수가.

나는 그것이 악마가 말하는 것이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다. 그리고 우리가 높은 수준에 있었다면, 균등화하는 동안 낮은 수준이 뒤따르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우리는 엘리야가 깊은 구덩이, 수렁에 빠진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New International Version의 표현대로 주님, 저는 이제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내 목숨을 가져가세요.

나는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쓰러져 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예, 예, 불쌍해요.

우리는 갈멜산에서의 경험의 결과로 큰 국가적 부흥을 경험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냥 죽게 해주세요. 끝내자. 이제 하나님의 처방을 주목해 보십시오.

천사가 그에게 손을 대며 일어나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둘러보니 그의 머리맡에 뜨거운 숯불에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인생을 계속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을 계속하십시오. 그는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

여호와와 사자가 다시 와서 그에게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니라 여행은 당신에게 너무 벅차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쳤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고갈되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우울합니다. 먹을 것을 가져오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처방은 단순히 삶의 고삐를 잡고, 평범한 일을 하고, 일반적인 일을 하고, 앞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뒤를 돌아보며, 위대한 승리를,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이제 천사는 앞을 내다보라고 말합니다.

준비해. 당신 앞에는 여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 특별한 여행을 선택했는지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 나에게서는 흥미롭습니다.

그 음식으로 힘을 얻어 그는 40주야를 여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엘리야가 이 모든 언약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의미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이것을 너무 멀리 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처방의 일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돌아가세요. 어디서 시작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사용된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앞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당신을 다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일을 지시하셨는지, 아니면 그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은 그에 대한 지도가 없지만 이번 여행은 이전 여행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그가 돌아 가야만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세벨과 그녀가 하나님의 땅에서 무엇을 성취하려고 했는지 오래 전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또한 더 큰 영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듯이, 열왕기서의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남으실 것인가? 아니면 바알로 대체될 것인가? 그 모든 것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실제적인 의미에서 그것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특히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는 그 언약 안에 살 것인가?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를 국민으로 확립한 약속을 지키며 살 것인가, 말 것인가? 따라서 우리가 시내산에서 엘리야까지의 기간을 본 것은 실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언약은 계속 유효할까요? 아니면 무효화될까요? 그래서 그는 동굴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 번, 우리는 그가 잠을 잤다는 말을 듣지 못했지만, 그곳에서 밤을 보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지난번에 우리는 엘리야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또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매우 흥미로운 것입니다. 히브리어 문자 그대로는 "무엇을 듣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진술에 할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NIV와 대부분의 다른 현대 번역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뭐하고 있니? 그건 부정적인 면이 있지 않나요? 여기서 뭐하는거야? 나는 그것이 부정적이라고 확신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엘리야, 당신에게 필요한 게 여기에 있나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여기에 왔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두 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질문에 두 번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는 본질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대답합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하나님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는 내가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 여기에 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내 관점을 되찾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아니요. 그는 다른 질문에 대답합니다.

나는 하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이 많으니라 매우 구체적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유일한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오, 친구들이여, 가난한 나 증후군을 조심하세요. 우리는 얼마나 쉽게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게 됩니까?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들.

하나님은 나가서 굴 어귀에 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입니다. 사실 그것은 침묵이다.

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건 신이 아닙니다.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건 신이 아닙니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건 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후에 왔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 것도 아닌 소리입니다.

완전하고 완전한 고요함. 그리고 우리는 시편 46편을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신이라는 것을 알아내세요. 아니요, 저는 그런 대격변에 속하지 않습니다. 나는 갈멜산에 떨어진 불이 아니다.

나는 폭풍우를 겪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바알이 아닙니다. 누구세요? 단어.

그 침묵 속에서 한 목소리가 그에게 말했다. 둘 사이의 차이점은 나에게 흥미롭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13절에 보면 음성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 경우에는 들리는 목소리였는지 궁금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이 세상에 신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 어떤 것에도 붙잡힐 수 없습니다. 그가 우리와 관계를 맺는 유일한 방법은 말로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한다. 그러자 엘리야도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왔던 길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다메섹 광야로 가십시오. 네가 거기 이르거든 하셀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을 삼으라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아벨므홀라 출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예후는 하젤의 칼을 피하는 자를 죽일 것이다. 엘리사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일종의 괄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중에 아직도 칠천 명이 있으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그 입으로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엘리야, 당신은 혼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해설자들이 토론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하젤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불순종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난번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은 정말 하나의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 당신은 헤이즐에게 기름을 부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후계자를 통해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흥미로운

일이다. 나는 내 후임자가 실제로 내 소명을 이행하도록 할 의향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일종의 자기 부정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엘리야가 불순종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는 이 사역을 수행하고 그의 지도자가 그에게 요청한 일을 완수할 그의 후계자에게 기름을 부는 일에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사의 기름 부음 그림은 흥미롭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 부자일 겁니다. 그는 현장에 있습니다. 그의 앞에는 12팀의 소가 있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이 이곳의 주인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와서 엘리사의 어깨 위에 겹옷을 던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당신을 따라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따라 걸을 것입니다. 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건기라는 위대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습니다. 당신이 만들어진 사람이 되십시오. 이제 다시 나를 따라오세요.

예수님께서서는 갈릴리 해변에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세요. 내 발자취를 따라 걸어보세요.

내가 가는 곳으로 가세요. 내 말을 들어보세요. 이것이 제자도의 의미입니다.

엘리사는 쟁기를 자르고, 소를 잡고, 백성들을 먹이는 제사를 드리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과 나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를 떠나는 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당신의 소유물을 떠나는 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와서 나를 따라 걸어가십시오.